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9. 26.(화) 11:00 < 9.27.(수) 조간 > 배포 2023. 9. 26.(화)

확장현실(XR) 산업 관련 업계 한자리에 모였다

-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 제1차 운영위원회 열려
- 부품, 기기(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등 전방위 간 협력 첫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9. 26.(화) 한국디스플레이협회에서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의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

확장현실(XR) 산업은 26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차세대 먹거리 시장으로, 지난 6월 애플은 확장현실(XR) 기기 출시를 발표하였으며, 구글·퀄컴 등 세계적(글로벌) 기업들도 확장현실(XR)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에 국내 확장현실(XR)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을 출범한 바 있으며, 그간 파악된 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계들과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는 콘텐츠(이노시뮬레이션)와 플랫폼(SKT) 업계도 처음 참석하여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협의체로 구성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확장현실(XR) 산업 생태계 현황 및 업계 수요를 분석한 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확장현실(XR) 기술 이행안(로드맵) 수립, 생태계 구축, 핵심부품 및 사업(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장으로 참석한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현실(X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부품의 국산화와 첨단기술 확보, 사업(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생태계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운영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실 디스플레이가전팀	책임자	과 장	차세운 (044-203-4255)
		담당자	사무관	김아름 (044-203-4257)

新성장 4.0 상상을 현실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별첨 **「XR 융합산업 동맹」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 행사 개요

○ **(목적)**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이후 주요활동 검토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일시·장소)** ‘23.9.26(화) 오후 2시, 디스플레이산업협회

○ **(참석자)** 산업부, XR기기·부품·서비스업계, 유관기관

▸ **(정부)**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디스플레이가전팀장

▸ **(기업)** (세트) 삼성전자, LG전자, 피앤씨솔루션, (부품)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엘지이노텍, 레티널, (통신사) SKT, (SW서비스) 이노시뮬레이션, 버넥트, 맥스트

▸ **(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협회

□ 주요내용

○ XR산업의 HW-SW-콘텐츠 생태계 및 글로벌 경쟁력 현황

○ 업계 수요 현황 및 이에 기반한 산업동맹 운영계획 협의

* ’23년 8월, XR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동맹 수요조사 실시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2	2’	○ 모두 발언	첨단산업정책관
14:02~14:05	3’	○ 운영위원 사진촬영	운영위원
14:05~14:20	15’	○ XR산업 생태계 및 글로벌 경쟁력 현황	삼성서울병원 김도균 교수
14:20~15:50	90’	○ ’23 산업동맹 운영계획 논의	전(全) 참석자